

냉전기 중국의 대유럽 외교

: '독일 문제¹⁾'에 대한 관여 확립과 대동독 지원을 중심으로 1949 - 1955

SHAO TIANZE (교토 대학)

1. 연구목적 및 배경

들어가며: 오늘 한일 차세대 학술 포럼이라는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냉전기 중국의 대유럽 외교와 대동독 및 서독 정책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중국과 분단국가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와 독일의 유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본 역사 자료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중국이 92년 한국과의 수교라는 기존 대한반도 정책의 전환점에 당면했을 때, 72년의 '독일 경험'이 실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가 단순히 중국 동독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청자인 여러분에게 중국과 동독의 관계에서 당시 중국 외교의 특징과 행동 양식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구목적 : 먼저 현재 발표자의 연구는 냉전기 중국이 '향소일변도(向蘇一邊倒)' 정책을 국시로 삼았던 50년대 초기부터 중소 대립이 심화되어 대외 전략을 수정한 60년대 전반을 대상으로 유럽 지역을 향한 중국의 외교 전략과 대동독 및 서독 정책을 외교사적 접근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보고 내용은 상기 연구 제목의 중요한 일환으로, 동독이 건국된 1949년 초기부터 서독이 파리 협정에 의해 주권을 되찾은 1955년까지 사이에 중국이 주로 무역 협정을 통해 독일 문제에 관여를 확립한 대동독 지원 과정을 주로 양국의 일차 사료에 기초해 검증하고 그 특징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연구배경: 연구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공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국제 사회에 신중국의 승인과 자국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미중 양국이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됨에 따라 대만 통일이 불가능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대미 관계를 통해 중국의 존재를 국제 사회에 승인받기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 '향소일변도(向蘇一邊倒)' 정책을 외교 방침으로 삼았던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에 가담하여 그 맹주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 동맹을 맺고 신생 중국의 생존을 소련에 걸었습니다. 이처럼 건국 직후 중국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²⁾는 중국 외교의 대미 혹은 대소정책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러 중국의 유럽 외교와 동서독일정책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중국 외교에 대해 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중국 외교부의 서류 자료(공문서)가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신규 공개됨에 따라 중국의 대외 정책 전반에 있어서 대미, 대소 정책 이외의 연구 영역에도 발을 디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미, 대소 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1차 사료의 이용으로 중국 대외 정책을 보다 다면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건국된 연도는 동서 냉전이 진전 중이던 국제적 맥락에 편

1)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 동서 분열과 재통일에 관한 여러 문제를 말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고. The Cold War, the German Question, and the First Major Upheaval behind the Iron Curtain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1), pp. 71-73.

2) 양규송(楊奎松) 저, 『냉전 시대 중국적 대외 관계』, (베이징, 베이징 대학 출판사, 2006년);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1.; Lorenz M. Lüthi, The Sino-Soviet Split-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등.

입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은 분단되어 동서 각각의 진영에 속해 유럽 냉전의 최전선에서 대치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같은 사회주의 진영인 동독 그리고 서측 진영에 속하지만 무역상 매력적인 공업 대국인 서독, 이 두 독일에 대한 외교 정책은 항상 이데올로기(이념)와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 사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관념을 주장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중 대립이 여전히 격화 중인 지금, 중국·유럽연합(EU) 관계, 독중 관계의 역사와 현 상황은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중 양방향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본 실증적 연구는 아직 한정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는 그 빈틈을 메워 중국·EU 관계 및 독중 관계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한 지견을 만들어 사회적 요청에 응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중국 외교에 입각한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 전략 사례 연구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국·동독관계 수립과 전개, 특징과 문제점

중국·동독관계 수립과 전개 :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불과 일주일 후인 10월 7일에 독일민주공화국도 건국되었습니다. 미소가 대립하기 시작한 전후 시기에 이 두 신생 국가는 나란히 사회주의진영에 들어가 국제 사회 및 글로벌 냉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27일 중국과 동독 사이에서 정식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부터 1955년 12월 25일 독중 우호 협력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본적으로 중국과 동독 관계의 제1단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독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접촉과 이해의 초기 단계로, 양국 모두 신체체가 탄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의 정당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당, 양국은 당연히 ‘형제 정당’, ‘형제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동독과 중국의 우호 관계가 확립된 초기에는 동독이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은 동독의 요구를 지지하고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특징과 문제점 : 이러한 양국의 유화 분위기는 1951년 중국과 동독 간의 무역 협정 협상시, 서독 국민에 대한 동독의 통일 전선 전략을 지지하기 위해 중국이 중국과 서독 간 무역을 동독이 단독으로 ‘중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양국이 거액의 대외무역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1953년 ‘동베를린 폭동 사건’ 후, 독일 정부가 자국의 식량 꺾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1953년 추가 무역 협정 체결을 요청하고 중국은 국내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5,300만 루블 상당의 농산물 및 부산물을 동독에 지원했습니다. 1955년 동독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관계 조약이 조인된 후, 동독은 자국의 주권을 더욱 외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국에 독중 우호 협력 조약의 체결을 요구했고 그해 말 중국이 이를 빠르게 승낙하면서 중국과 동독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 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독의 독일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동독의 독일 문제에 대한 입장은 사실 소련의 독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과 동독의 관계에서 소련의 대독 정책이 구조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련의 독일 정책이 직접적으로 동독의 외교 방침을 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교 전략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시기 중국과 소련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독일 재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서부터 독일 통일사회당(SED)이 동독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결단과 스탈린 사후에 소련의 신지도부가 대독 정책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동베를린 폭동 사건’으로 중단된 뒤 사회통일당 체제를 지킬 것을 고집한다고 결의되고 소련이 마지막에 ‘두 개의 독일’을 인정하기에 이르기까지, 동독은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문제에 관한 정책 변화는 동독과 중국 간의 여러 세세한 문제에 영향을 미쳐, 1950년대 초반 동독과 중국 간 대외 무역의 경제적 손실, 1953년 중국의 동독 농업 원조, 1955년 독중 우호 협력 조약 체결 등은 직간접적으로 동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동독의 지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지닌 ‘사회주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동독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해 형제로서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모순이나 차이는 보류되었습니다.

3. 중국의 대동독 지원의 실태와 그 결과(개관)

3.1 1951년도 독중 무역 협정: ‘정치가 경제를 좌우한다’

1950년 무역 협정 협상 시, 동독은 아직 중국에 있어서 사실상 완전한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중국 측은 동독의 생산, 공급 능력, 조직 능력, 소련 지배하의 공장과 동독의 관계, 동독과 서독의 정치 및 경제 관계, 협상에 대한 동독의 의도와 요구에 대해 적절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동독을 사회주의 진영의 형제국가로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본주의 세계에 맞서야 한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동독 관계에서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무역 협정 결과, 동독은 서방측의 금수(禁輸) 및 납기 건적이 느슨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역 협정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 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3.2 1953년 ‘동베를린 폭동’과 중국의 대동독 원조추가적인 지원 수급과 책임 증가

1953년 ‘동베를린 폭동’ 후, 독일 정부는 자국의 식량 꺾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1953년 추가 무역 협정 체결을 요청하고 중국은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300만 루블 상당의 농산물 및 부농산물을 동독에 공급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1951년의 무역 협정이 부진해 이미 중국 측에 4.2억 루블의 수출 부채를 지고 있어 그 후 양국 무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동베를린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동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추가 무역 협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동독의 무역 부채는 더 늘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동독은 중국에게 엄청난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3 1955년 독중 우호 협력 조약 : 새로운 차원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 중국

1955년 12월 25일 동독 총리 오토 그로테볼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독중 우호 협력 조약에 조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독에게 중국과 어떠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비단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제3세계 동독의 영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독에게 베이징은 아시아 국가 대표들과 접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후 확실히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향후과제

1955년 이후, 파리 조약을 통해 점령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서독이 등장합니다. ‘독일 문제’를 둘러싼 동서독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더욱이 중국의 대동서독 정책도 점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의 사료 공개가 지연되기도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동서독 정책이 어느 타이밍에 변용되었고 또 무엇을 계기로 변화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50년대 중반 중국·동독 무역의 부진으로부터 중국이 공업 생산상의 수요 면에서 서독의 중요성을 찾아내 종래의 대동서독 무역의 균형을 재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국·서독 무역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고자가 수집한 중국의 외교 문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지 연구자의 교시에 따라 신청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 중앙의 지시나 보고에 관한 지방 당안관(당안을 수집 및 보관하는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자는 단독으로 베이징, 상하이, 톈진의 문서관을 방문했습니다. 1950년대 초 일찌감치 서독과 무역을 벌였던 국영 제일자동차 기업 문서관(창춘시)과 지린성 문서관을 방문했지만 문전 박대를 당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집한 역사 자료의 정리 및 분석에 노력하면서 이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현지 연구자의 협력 아래, 중국 각지에 있는 지방 당안관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도서관, 외사 관공실이나 선전부 등의 관계 기관의 내부 간행물을 현지의 법률 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집할 예정입니다. 향후는 재조사 결과에 더해 지금까지 수집할 수 있었던 독일이나 미국측 등의 일차 사료에 비추어 쌍방향적으로 사실과 통계 데이터를 검증해 중국의 대동서독 외교의 전개와 변용 과정을 꼼꼼히 쫓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문헌(일부)

중국어문헌:

【德】迪特·海茵茨希：《中蘇走向同盟的艱難歷程》（張文武等譯），北京：新華出版社2001年版/薛衛天：《中蘇關係史（1945—1949）》，成都：四川人民出版社2003年版/沈志華、李丹慧：《戰後中蘇關係若干問題研究——來自中俄雙方的檔案文獻》，北京：人民出版社2006年版/楊奎松：《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南昌：江西人民出版社2006年版/沈志華：《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廣州：廣東人民出版社2007年版/沈志華：《無奈的選擇：冷戰與中蘇同盟的命運（1945—1959）》，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3年版/吳景平：《從膠澳被占到科爾訪華——中德關係（1861—1992）》，福州：福建人民出版社1993年版/潘琪昌主編：《百年中德關係》，北京：世界知識出版社2006年版；裴堅章主編：《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1卷，北京：世界知識出版社1994年版/王泰平主編：《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2卷，北京：世界知識出版社1998年版/王泰平主編：《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3卷，北京：世界知識出版社1999年版。

유럽어 문헌:

Odd Arne Westad, 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63* (Washington, D.C. and Stanford: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Lorenz Lüthi, *The Sino-Soviet Split: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Sergey Radchenko, *Two Suns in the Heavens: the Sino-Soviet Struggle for Supremacy, 1962–1967* (Washington, D.C. and Stanford: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 Joachim Krüger, "Die Volksrepublik China in der Aussenpolitischen Strategie der DDR (1949–1989)," in Kuo Heng-yü und Mechthild Leutner, hrsg., *Deutschland und China/Beiträge des Zweiten Internationalen Symposiums zur Geschichte der Deutsch-Chinesischen Beziehungen Berlin 1991* (München: Minerva Publikation, 1994), S. 43–58; "Zu Gast in Peking. Die DDR und die VR China in den 80er Jahren," *WeltTrends: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Politik und vergleichende Studien*, Nr. 2, 1994, S. 133–144; "Das letzte Jahrzehnt der Beziehungen der DDR zur Volksrepublik China," in Mechthild Leutner, hrsg., *Politik, Wirtschaft, Kultur: Studien zu den deutsch-chinesischen Beziehungen* (Münster: Lit Verlag, 1996), S. 63–76; "Das China-Bild in der DDR der 50er Jahre,"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Band 25, 2001, S. 258–273; "Das erste Jahrzehnt der Beziehung," "Die parteiinternen China-Informationen der SED-Führung 1969–1988," in Joachim Krüger, hrsg.,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Beziehungen der DDR und der VR China/Erinnerungen und Untersuchungen* (Münster: Lit Verlag, 2002), S. 65–111/163–171; Claudie Gardet, *Les relations de la République de Chine et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Allemande (1949–1989)* (Bern: Peter Haupt, 2000).

(번역책임자: 최유진)